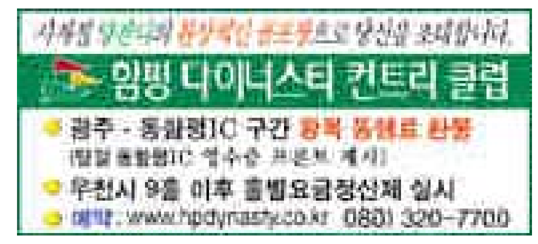

한국 승마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른 광주 풍암고 백두산 선수가 멋진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승마 '샛별' 탄생

광주 풍암고 2학년 백두산, 전국학생승마선수권대회 2관왕

한국 승마의 명맥을 이어갈 '샛별'이 떠올랐다. 승마의 차세대 주자로 시선을 모은 광주 풍암고 백두산(16·2년) 군이 그 주인공.

高1 때 입문한 '늦깎이'

백 군은 지난 20일 전북장수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학생승마선수권대회 남고부 준마, 용마, 표준 경기 중 중장애비월경기 용마(난이도 중급)와, 이어 벌어진 표준장애물비월경기(난이도 상급)에서 무감점으로 금메달 두 개를 따냈다.

고교 1학년 때 운동을 시작한 늦깎이 승마선수인 백 군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수준급의 실력을 발휘했다. 백 군은 올해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용마 3위, 천마 3위에 입상한 후 광복 63주년기념 전국승마대회 용마에서도 3위에 올랐다.

학교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백 군은 아버지인 백인철(46)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발전협력단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승마에 전념할 수 있었다.

백 군은 1년여의 짧은 승마 경력에도 기량이 일취월장,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앞으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재목이 될 것이라는 게 승마계의 평가다

임광철 광주시 승마협회 전무이사는 "백두산 선수는 신장 175cm에 체중 64kg으로 승마선수로서 매우 좋은 체격조건을 갖추고 장애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과의 호흡도 잘 맞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면 김형칠-마재웅-최준상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승마 계보 이을 기대주

풍암고 이재화 체육부장은 백 군이 짧은 시간에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것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한 학교의 노력과 광주승마협회의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장원삼 트레이드 '없었던 일로'

신상우 KBO 총재 승인 거부…"임기내 사퇴"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상우 총재가 '장원삼 트레이트' 불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심을 거듭했던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장원삼 트레이드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신상우 KBO 총재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삼성 라이온즈이 히어로즈 에이스 장원삼을 데려오는 대신 현금 30억원과 투수 박성훈을 주는 트레이드는 승인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신 총재는 "히어로즈 창단 당시 약속했던 '5년간 구단 매각 금지 및 현금트레이드 사전 승인' 합의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프로야구 출범이후 구단간 트레이드가 승인 거부된 것은 27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스토브리그 초입 최대 논란이 됐던 삼성-히어로즈의 현금트레이드는 1주만에 결국 불발됐다. 트레이드 발표 직후 30억원을 히어로즈 통장에 입금시킨 삼성은 되돌려받아야 하며 발표 다음날부터 유니폼을 바꿔 입고 훈련중인 장원삼과 박성훈은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신 총재의 결정으로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된 삼성이나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히어로즈가 다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파동은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상우 총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사퇴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날짜를 정해 고별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월 취임한 신 총재는 임기가 2009년 3월까지이지만 "올림픽을 끝난 직후 사퇴할까도 생각했지만 올해 프로야구 마지막 행사인 골든글러브까지는 총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여 12월11일 골든글러브 행사이후 물러날 뜻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KBO 트레이드 불허 배경

"선수장사는 안된다"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삼성 라이온즈와 히어로즈가 시도한 '장원삼 30억원 트레이드'를 끝내 승인을 거부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선수장사'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상우 총재는 21일 장원삼 트레이드를 불허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현대 유니콘스가 어려울 당시에도 선수를 팔아서 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었다"고 밝힌 뒤 "히어로즈 역시 '5년간 구단 매각 금지 및 트레이드시 KBO 사전 승인'이라는 창단 합의사항을 위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KBO가 이처럼 '선수장사'를 금지하는 것은 8개 구단의 전력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히어로즈가 주축선수들을 하나 둘 팔아서 구단을 운영할 경우 팀 전력이 급격한 위축돼 나머지 7개 구단과 실력 차이가 벌어져 프로야구 경기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BO는 과거에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구단의 '선수 장사'는 대부분 금지했었다.

■ 트레이드 불허 구단 반응

우리 '당황' 삼성 '수용'

장원삼 현금 트레이드 불가 결정이 나오자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는 충격에 빠졌지만 나머지 6개 구단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히어로즈 이장석 사장은 21일 "뜻밖의 결정이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지금 대응책을 말하기는 곤란하고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결정에 적잖이 당황한 듯 "지금 상황에서 정신이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KBO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간단한 입장만 표명한 채 침묵을 지켰다.

삼성은 신상우 KBO 총재의 발표를 듣고 "KBO의 트레이드 불가 결정을 존중하면서 수용하겠다"며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다른 구단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LG 트윈스 이영환 단장은 "늦었지만 신상우 총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프로 구단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지애(20·하이마트)가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ADT챔피언십 1라운드 9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굿 샷'

LPGA 투어 ADT챔피언십 첫날 공동 2위

신지애(20·하이마트)와 김인경(20·하나금융)이 우승 상금 100만달러가 걸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ADT챔피언십에서 기분좋게 출발했다.

브리티시여자오픈 챔피언 신지애는 21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김인경도 신지애와 똑같이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며 공동 2위에 올라 단독 선두 캐서린 헐(호주·4언더파 68타)을 1타차로 추격했다.

페어웨이를 놓치지 않는 정확한 드라이버샷을 날린 신지애는 전반에 버디 3개를 낚았지만 후반에 버디 2개를 보기 2개로 맞바꾸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신지애는 "드라이버샷이 좋았지만 핀 위치가 너무 어려웠다"며 특히 15번홀(파5)을 가장 어려운 홀로 꼽았다.

최나연(21·SK텔레콤)과 지은희(22·휠라코리아),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도 2언더파 70타를 치며 공동 4위에 올라 한국 선수 5명이 톱 5에 들었다.

올 시즌 4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폴라 크리머(미국)가 1언더파 71타로 공동 7위에 자리잡고 한국 선수들을 위협했다.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 23위로 떨어졌고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도 3오버파 75타를 적어내 공동 26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오안나 2언더 선두

ADT캡스 여자골프

제주도의 거센 바람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챔피언십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21일 제주 스카이힐골프장(파72·6천27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오안나(19)가 2언더파 70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고 이보미(20)와 임지나(21·코오롱)가 1타 뒤진 1언더파 71타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출전 선수 66명 가운데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선수는 3명 뿐이었다.

신인왕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최혜용(LIG)은 3오버파 75타를 쳐 공동 7위에 올랐지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소연(18·하이마트)은 7오버파 79타를 쳐 공동 35위로 떨어졌다.

올 시즌 5승을 올린 서희경(22·하이트)은 6오버파 78타로 공동 26위, 세차례 우승한 김하늘(20·코오롱)은 10오버파 82타로 공동 51위까지 밀렸다.

사우디 관중 이운재에 레이저 공격

축구협, FIFA에 재발방지 요구

대한축구협회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3차전이었던 사우디 아라비아와 원정경기 때 홈 관중이 골키퍼 이운재에게 레이저 광선을 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이운재가 레이저 광선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진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선수 본인의 의견을 들어 어떤 형태로든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회의 이같은 대응은 FIFA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관중의 과도한 행동으로 선수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이운재는 지난 20일 새벽 사우디 리야드서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 후반에 세 차례 레이저광선 공격을 받아 2~3초간 시야가 흐려지는 등 피해를 봤다. 이운재는 레이저를 쏜 방향까지 제시하며 주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9월6일 바레인과 A조 최종예선 1차전 원정 때 선수들이 홈관중의 레이저 광선 공격에 피해를 봤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FIFA에 낸 적이 있다.

U-20 북한 여자축구

브라질에 역전패

2회 연속 세계 정상을 노리던 북한이 2008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첫 판에서 브라질에 덜미를 잡혔다.

디펜딩챔피언 북한은 21일 오전 칠레 테무코의 헤르만 베커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선제골을 뽑고도 상대의 뒷심에 밀려 2-3으로 무릎 꿇었다. 2006년 러시아 대회에서 남북한을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북한은 전반 30분 리예경이 선취골을 터트려 앞서 나갔다.

하지만 전반 인저리타임 자나이나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서 후반 3분 에리카에게 역전골, 21분 프란실레에게 페널티킥으로 추가골까지 내줘 전세가 뒤집혔다. 북한은 리은향이 후반 45분 만회골을 터트려 점수 차를 줄인 데 만족해야 했다.

스포츠중계

22일 (토)

▲2008 여수 오픈 테니스 대회(10 : 00·KBS N SPORTS)

▲08/09 V리그 〈삼성화재 : 현대캐피탈〉(14 : 30), 〈KT&G : 흥국생명〉(16 : 3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모비스 : KCC〉(14 : 50·SBS스포츠), 〈삼성 : 전자랜드〉(14 : 45·XPORTS), 〈KTF : 오리온스〉(15 : 00·MBC ESPN)

▲2008 K리그 〈울산 : 포항〉(16 : 50·SBS스포츠·MBC ESPN)

23일 (일)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 풀럼〉(00 : 00·MBC ESPN), 〈아스톤빌라 : 맨체스터 Utd〉(02 : 30·MBC ESPN)

▲08/09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축구(04 : 00·KBS N SPORTS)

▲08/09 V리그 〈대한항공 : LIG손보〉(14 : 00), 〈GS칼텍스 : 도로공사〉(16 : 0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KT&G : SK〉(14 : 50·SBS스포츠), 〈동부 : 삼성〉(14 : 45·X-PORTS), 〈오리온스 : LG〉(15 : 00), 〈KCC : KTF〉(17 : 00·MBC ESPN)

▲08/09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 우리은행〉(17 : 00·SBS스포츠)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 블랙번〉(22 : 30·MBC ESPN)

24일 (월)

▲08/09 프랑스 리그 〈AS모나코 : 르망〉(01 : 00·KBS N SPORTS)